관세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11. 23.(월) 11:00

관세청,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10개국 관세행정현대화 워크숍 개최

- 11월 23일(월)부터 이틀간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10개 회원국 대상 능력배양 워크숍 개최
-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시연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혁신 사례 공유

관세청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11월 23일(월)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10개 회원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디지털 무역과 관세행정의 현대화 촉진'을 주제로 능력배양 워크숍을 개최한다.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는 중앙아시아 및 인접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해 1997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로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 파트너십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5개국과 인접 6개국인 중국·몽골·아제르바이잔·조지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역내 10개국 대표단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국제상공회의소(ICC) 관계자를 포함한 총 28명이 참석한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관세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3년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3개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참가국들은 그간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지역의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교역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통관정보의 실시간 교환과 관세행정 시스템의 연계가 무역원활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회원국 간 △무역원활화 및 디지털 통상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국제표준 △전자무역서류의 법적 인정 및 국경 간 신뢰 구축방안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한국의 선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실시간 시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 적용한 혁신 경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밀수입 적발 등 생생한 위험관리 사례도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CAREC) 회원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관세행정 당국 간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교환을 통한 디지털 무역 활성화는 기업의 무역 비용을 줄이고 교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관세행정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원활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이태훈 (042-481-32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